

“자비롭고 평화로운 마음 시방세계에”

부산 경남 연등축제 준비 한창

부산 경남 불자들이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여 앞두고 다양한 축제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3월 24일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2016년 부산연등축제’ 제1차 실무기획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이번 연등축제는 불교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문화행사를 지향하고, 부처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기쁨의 자리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통등 전시, 거리등, 등터널 등 화려한 불거리와 체험 행사 및 부대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16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산 경남 불교연합회들이 연등축제 준비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연등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즐겨워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올해 부산연등축제는 개막 점등식, 부산연등문화제, 부산연등회로 크게 3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개막 점등식은 4월 30일 오후 7시 부산 양정 송상현 광장 특설무대에서 시작되며 연등축제의 막을 연다. 이때부터 5월 15일까지 부산연등문화제가 이어진다. 연등문화제는 송상현 광장과 부산 광복로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아름다운 연등행렬로 거리를 수놓을 부산연등회는 구덕운동장에서 집결해 시작된다.

연등회는 5월 7일 오후 4시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행렬단과 부산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율동 및 각종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화합을 다진다.

이후 봉축연합대회를 개최하고 부산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과 내빈들의 관불의식, 축사 및 대화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연등행렬은 7시 30분에 출발하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봉축 문화·음악제 등 행사 다채 “연등 빛으로 길거리 물든다”

며 단일 구간으로 구덕 운동장을 출발해 동아대 부민 캠퍼스 방향으로 돌아 대청로 진입 후 대동회향한마당으로 마무리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2016년 부산연등축제 과제에 연희단 참가 인원 확보와 대중들의 참여도를 꼽았다. 사무총장 심산 스님은 “선거철이 맞물려 있어 효율적인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며 “문화포교의 방향으로 시민들과 어울리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찰들의 많은 참여 부탁한

다”고 독려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만초)도 ‘2016년 태화강 연등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울산 태화강 연등축제는 4월 30일~5월 1일 이틀 동안 옛 태화호텔 맞은편 태화강 둔지에서 개최된다. 특별히 첫날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빛사랑 예술제’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는 이번 예술제를 통해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전달하고 학생의 재능을 개발하며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예술제 부문은 그리기, 글짓기, 장작등 제작이며 참가 접수 기간은 4월 1일~22일이다. 접수는 태화강 연등축제 조직위원회(www.ubcf.net)로 하면 된다. 행사는 4월 30일 오전 11시~3시 까지 진행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 이날 울산불교종단연합회는 예술제와 함께 부대행사로 다양한 전통놀이를 준비하며 청소년 외 시민들은 발우공양체험 및 소원달기, 컵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에 참여할 수 있다. 오후 3시에는 시민한마음 축제가 열려 가수들의 뜨거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점등식은 이날 7시 30분에 봉행된다.

5월 1일에는 오후 2시 울산 태화루에서 태화강 둔지 행사장까지 부처님 이운식을 진행하며 오후 6시 봉축 법요식, 오후 7시 연등행렬이 이어진다. 연등행렬은 태화강 둔지를 출발해 시청을 돌아 달동 롯데마트 사거리, 변영사거리, 현대백화점 사거리, 롯데백화점 사거리를 거쳐 해산한다. 전체 동선은 약 4.8km.

창원불교연합회(회장 도홍)는 진해구불교사암연합회(회장 해초)와 함께 넓은 지역적 조건을 고려해 두 차례로 나눠 연등축제를 진행한다. 먼저 진해에 있는 시민과 불자들을 위해 5월 1일 오후 4시 진해 중원 로터리 일대에서 다문화 한마당 축제를 시작한다. 다문화축제는 먹거리 장터, 노래자랑 등이 펼쳐지며 봉축을 맞아 자비의 장학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점등식 및 법요식은 오후 7시에 봉행된다. 연등행렬은 중원 로터리로 시작해 진해역을 돌아 다시 중원로터리로 돌아와 해산한다.

이어 창원시청광장에서 연등축제를 연다. 1부 창원시연합 봉축 법요식을 개최하고 2부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봉축 음악회가 진행된다. **하성미 기자**



베트남 향기 품은 보금자리 쉼터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는 3월 27일 다문화인들을 위한 쉼터 베트남 하노이 빌리지를 개원했다. 삼광사 인근 주택을 리모델링 해 문을 연 하노이 빌리지는 앞으로 다문화인들의 복지와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삼광사는 하노이 빌리지를 시작으로 나라별로 쉼터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림사, “포교 위한 문화 공간으로”

외국인·의경 함께한 템플스테이

부산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가 문화포교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동림사는 3월 27일 경내에서 ‘의경과 외국인인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외국인 및 기장 파출소 의경 40여 명과 봉사자 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불교문화체험을 통한 문화포교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외국인에게 템플스테이 체험 기회를 제공해 불교와 더욱 친숙해지도록 돕고, 불자들과 교류하는 장이 되도록 힘썼다. 아울러 국전 초대작가인 주지 성타 스님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눈 재능기부, 신도 및 자원봉사자들이 다함께 뜻을 모아 진행한 행사들이 다채로웠다는 평가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먼저 선차 체험으로 문을 열었다. 차를 마시는 동시에 명상을 체험하며 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차를 마시며 차의 맛과 도자기, 한복을 통한 전통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사찰 비빔밥 먹

기, 연등 만들기, 전통염색, 그림부채 만들기, 떡메치기, 염주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해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캐나다에서 온 쉐타 씨는 “처음 접해 보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알 수 있어 기뻐했다”며 “특히 선차 체험이 인상적이었으며 아름답고 쉽게 볼 수 없는 문화라 뜻 깊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보현 의경은 “기장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전통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추천받아 다 같이 오게 되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며 “할머니께서 깊은 신심을 가진 분이셔서 어릴 적에는 자주 절을 찾았지만 요즘 들어선 자주 가질 못하고 있었다. 이번 계기로 절에 오니 할머니가 기도하셨던 모습도 생각나고 종종 절을 찾아오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동림사는 현재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도 매주마다 운영하며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주지 성타 스님은 “문화포교를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기장 동림사는 외국인과의 의경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3월 27일 동림사 경내에서 개최했다.

한국불교 대강백 덕민 스님, 강맥 전하다

3월 28일, 기림사에서 운암 스님에게

한국불교 대강백이라 일컫는 덕민 스님이 처음으로 강맥을 전수했다.

불국사승가대학장으로 평생 후학을 양성하는 데 매진해온 덕민 스님은 3월 28일 기림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전강식을 통해 기림사 부주지 운암 스님에게 강맥을 전수했다.

전강식에서 덕민 스님은 전강계와 영송계를 전달하고 전통 강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진하고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운암 스님은 “정말 감사드린다”며 “한결 같은 마음으로 처음 보였던 그 심정으로 따르고 가르침을 향해 정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림사는 현재 전통 강맥을 잇기 위해

불국성립한문불전대학원 개원을 준비 중이어서 강사 스님의 역할이 중요한 곳이다. 앞으로 운암 스님은 불국성립한문불전대학원 원장을 맡는다.

전강식에는 前 교육원장 무비 스님, 前 동국대 교수 법해 스님, 前 법주사승가대학장 종광 스님, 도암 스님, 성보 스님, 법산 스님 등 2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축하하고 격려했다.

덕민 스님은 석전 한영 스님으로부터 고봉 대수 스님, 우룡 종한 스님으로 계승되는 강맥을 잇고 있다. 우룡 종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덕민 스님은 1956년 3월 범어사에서 종한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8년 3월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청암사



불국사승가대학장 덕민 스님은 3월 28일 기림사 대적광전에서 운암 스님을 첫 전강계자로 강맥을 전수하고 후학 양성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합천 태동사에서 사서삼경을 수학했다. 1973년 법장사 주지, 1999년~2003년 부산 범어사승가대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불국사승가대학장을 맡고 있다.

운암 스님은 1987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91년 쌍계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1991~1998년까지 쌍계사승가대학에서 교수를 지냈다. **하성미 기자**

논리로 푸는 사주명리학 “석하명리(奭廈命理)” 속성 마스터과정 모집 및 공개 특강



- 석하명리 속성과정 제 6기 | 4월 18일부터 15주 과정 | 매주 월 19시 ~ 22시
- 무료 공개 특강 : 4월 18일(월) 19시 ~ 22시 (선착순 참가신청 02-585-0079)
- 수강료 : 150만원 | 한국웨딩플래너협회 B1 교육장 (학동역 8번 출구)
- 명리, 동양미래 진로적성 상담사 자격과정 겸비 | 전 과정 동영상 반복 학습

- 석하 소재학 박사 직강
 -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동양 미래학자
 -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역임
 - Earist University 동양철학부장 및 학장 역임
 -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
 - 저서 : 음양오행의 원리이해,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논리로푸는 사주명리학 1~4 권 외

-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 석하명리
 -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벗기고 합리적인 이론체계에 정립시킨 과학역학
 - 음양오행과 사주명리학의 모든 원리를 밝혀, “왜?” 라는 물음에 답을 준다. (왜 재성이 여자이고 돈이며, 인성이 문서가 될까?)
 - 사주명리학 총정리 / 성공과 실패의 시기 정확히 찾는 법
 - 격과 용신을 정하는 명확한 방법
 - 인생사계절 10년 주기 ‘석하리듬’
 - 명리 초 중 고급자 및 강사, 현업종사자
 - 유튜브검색 ‘논리로푸는 사주명리학’ 동영상 참조
 - 다음기수 무료 반복 수강(석하명리 도반, 평생회원)
 - 초보를 위한 별도 특강 진행

(재)하원정미래학회, www.hawj.co.kr / 02)585-0079 / 동양미래예측연구소(다음카페참조),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